진실을 경험하라 -밀레 MILLET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953호 1판 (음력 2월 1일) 2015년 3월 20일 금요일

우암학원 창학65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배워서 베푸는 광주 '차줌마들'

문화재단 전통음식 강좌 남자 수강생 12명, 장애인들에 '따뜻한 밥상' 요리봉사

"배워서 남 줬다."

19일 오전 10시, 광주시 남구 진월동 '작은 예수의 집'(원장 김대만). 앞치마를 두른 중년 남성들이 은퇴 후 배운 요리 솜씨를 뽐냈다.

이들은 최근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제6기 액티브시니어 전통음식 특별강좌를 마친 뒤 이날 장애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배움과 나눔의 즐거움을 동시에 맛보았다. 과거 요리 봉사는 전문 요리사나 여성이 주로 했지만 최근 '차줌마(요리를 잘하는 탤런트 차승원과 아줌마의 합성어) 열풍'에 '남성 요리 봉사'도 생겨난 셈이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최영자(광주시 지정 남도의례음식장)씨에게 요리를 배웠다. 그동안 오리탕, 남도한정식, 김치, 무등산보리밥 등 '광주5미'를 배운 이들은 이날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다. 작은 예수의 집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 18명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하기 위해 새벽 장을 봐야했다.

강좌에 참가한 이들은 재료비를 모아, 이날 시장에서 오리 8마리와 나물 재료를 사왔다. 장애인들의 건강을 고려해 영양분이 풍부한 오리탕과 시금치·토란대 나물을 만들 생각이었다.

이날 봉사에는 12명이 참가했다. 미처 시간을 못 낸 수강생들은 기꺼이 재료비를 보냈고, 며칠 전 다리를 다친 한 수강생은 지인의 도움을 받아 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조를 나눠 시금치 등을 다듬고 커다란 솥에 오리를 삶기 시작했다. 최영자 씨도 현장에 나와 간을 보며 조리를 거들었다.

음식 재료와 회비로 구입한 쌀 3가마를 들고 나타난 낯선 남성들의 등장에 장애인들도 관심을 보였다. 부엌 창문을 열었다닫았다 하며,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먼저 인사를 건네는 장애인도 있었다.

봉사에 참가한 이계양(58·전 광주 대성여고 교사)씨는 "요리를 배우면서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던 여자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 "내가 만든 음식을 누군가 맛있게 먹는 것을 보니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한 때는 잘나가던 시의원과 교사, 공무원, 한의사였던 이들은 오늘만큼은 부엌데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사랑의 쉐프'들은 장애인들이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본 뒤 부엌에 아무렇게나 상을 펴고 자신들이 만든 오리탕을 먹었다. 그들의 밥상에는 따뜻한 마음이 채워준 '잔잔한 감동'도 함께 차려졌다.

남성 요리 봉사 모임의 회장 박인화(68·전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씨는 "광주전통문화관에서 요리를 배운 모든 수강생들과 재능기부를 하며, 더 많은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싶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9일 광주시 남구 '작은 예수의 집'에서 전통문화관 제6기 액티브시니어 전통음식 강좌 수강생들이 장애인들에게 나눠 줄 오리탕을 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세월호 기억의 벽…"연꽃 되어 다시 피어나라"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조진태) 회원들이 19일 오후 광주시 서구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세월호 기억의 벽' 타일작업을 하고 있다. 참사 1주기를 한달 여 앞두고 진행된 행사는 희생자와 가족을 추모하고 위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작된 타일은 1주기가 되는 4월 16일 팽목항 '세월호 기억의 벽'에 부착될 예정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경찰 고위직 승진 '영남 잔치'

지난 12월 경무관 승진 39명 중 20명…충청 8명·호남 6명

박근혜 정부 '영남 쏠림' 심화…치안감 등 최고위직 더 심각

박근혜정부에서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는 '영남 잔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단행한 경찰 경무관급 이상 승진자들의 출신지와 출신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승진자 39명 중 영남 출신자가 20명으로 전체의 51.3%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가 첫 번째로 단행한 경무관급 이상 경찰 인사에서 영남 출신자가 41.5%(41명 중 17명)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첫 승진인사에서 영남 출신 비중을 지나치게 높게 해놓고 두 번째 인사에서 이를 완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영남 출신을 더 늘리면서 경찰 고위직에서 '영남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호남 출신의 경우 박근혜정부 첫 경찰인사에서 경무관 이상 승진자는 41명 중 7명으로 17.1%였으나 지난해말 두 번째 인사에서는 39명 중 6명으로 15.4%까지 줄었다.

충청 출신의 경우 첫 고위직 승진인사에서 9.7%(41명 중 4명)에 불과했으나 두 번째 인사에서는 39명 중 8명(20.5%)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영남 출신 위주의 고위직 승진 인사 때문에 현직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급 100명 중 영남 출신이 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청이 23명, 호남이 15명, 수도권이 13명, 강원·제주가 8명을 차지했다.

영남 출신은 호남의 2배 이상이 됨은 물론 호남과 충청 출신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

특히 경찰 최고위직인 치안감 26명 중 11명(42.3%),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 7명 중 4명(57.1%)이 각각 영남 출신으로 경찰 최고위직도 영남 출신이 싹쓸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경무관 이상 고위직 100명 중 현 경찰청장과 같은 경찰대 출신자는 60명이나 됐다.

박 의원은 "박근혜정부 2년차 경찰 인사에서 영남 편중이 더욱 노골화됐다"며 "정치경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특정지역 편중인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해뜨는 식당' 할머니 갔어도 천원밥집 계속 운영한다 ▶6면

광주, 클래식 2연승 도전 ▶20면

어? 성경이 읽어지네!
4월 3일(금) ~ 매주 금요일
오후2시 ~ 4시 (10주 과정)
광신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세미나실
구약 과정 개강
문의 : 062) 605 - 1112 광신대 평생교육원

광주 기업 '세화아이엠씨' 코스피 상장

타이어 금형 제조업체

광주지역에 10년 만에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하는 기업이 나왔다. 세화아이엠씨(회장 유희열)가 그 주인공이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는 지역 중견기업인 세화아이엠씨가 19일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돼 첫날 장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상장한 세화아이엠씨는 1981년 금호타이어의 자회사였던 '트라이썬'을 인수해 1999년에 법인을 설립한 타이어 금형 제조업체다.

이로써 광주·전남은 세화아이엠씨를 포함 총 17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보유하게 됐다. 이는 제주(7개사), 강원(3개사) 보다는 많지만 경기(136개사)와 부산(48개사), 경남(41개사), 대구(22개사) 등과는 비교도 안되는 적은 수치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심사 담당자는 "광주 지역이 상대적으로 기업 인프라가 부족해 기업들이 대체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거나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화아이엠씨는 상장까지 성공하면서 지역에서는 경사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세화아이엠씨의 시초가는 공모가(1만6300원) 대비 11.04% 오른 1만8100원으로 형성됐다. 오전 한때 1만7450원선에 거래되다가 공모가 대비 200원이 오른 1만6500원에 마감했다. 거래량은 217만760주, 거래대금은 376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